

나는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고전 15:9~10>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앙생활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일만달란트 빚 탕감받은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였습니다. 마태복음 18: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회에서도 원칙과 정의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받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은혜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50: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은혜 받은 백성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마음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크고 귀하게 쓰임 받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승리한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교회 분쟁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때가 AD51년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충만했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죽을 죄인이었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존재임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분파가 몇 갈래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의 반열에 끼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뛰어난 리더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훗날 스테반이 감당해야 할 남은 사명에 대한 중차대한 책임감과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요,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는게 아니라, 갈수록 더 커져갑니다. 딤후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연도는 대략 AD63년정도 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때보다 12년정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기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높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승리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대신 죽여주신 그 은혜와 그 고마움, 그 황송함들이 있습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이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은혜가 마음에 있으면 기가 짝 죽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요, 교회를 핍박한 자,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고마움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기적과 수많은 사역의 열매, 놀라운 체험이 있음에도 그는 더욱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훗날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로마감옥에 2차 투옥이 후에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딤후 4: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끝까지 승리하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15. 8. 16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8. 2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 창세기 6:11~20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 방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운행하심에 이르는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